

강 시장 “살기 좋은 군산 만들겠다”

군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 통해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 제시

김임준 군산시장이 '누구나 살기 좋은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겠다'며 2020년 시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27일 강 시장은 군산시의회 제223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산시가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임준 시장은 "2019년이 민선 7기가 내세운 시정목표와 계획의 기틀을 잡은 한해였다면 2020년은 하나둘 가지적인 성과를 내고 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하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내년을 군산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설립 예정인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전기차 클러

스터 조성,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기반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배달앱 서비스와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육료 지원 △4차 산업혁명 교육센터 구축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수제창작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유기동물 민원해소 및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의 환경복지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

진하고 환경오염 배출원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안전보험 전면 실시와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서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 경관 조명 설치, 먹거리 관광 육성에 힘쓰고 고군산군도와 새만금에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내년 8월 개최되는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과학적 영농분석 확대 △농민수당 지원 △농산물 가공식품 공공제조시설 확대 △친환경 농산물 통합 생산관리를 시행하는 등 농민들의 뜻과 노력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적극 지원하고 수산물 판매장 시설 개선, 신상품 어장 조성 등을 통해 수산업 부활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2019년 대비 15.4% 1747억원이 증가한 1조3080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김임준 시장은 "내년도 예산은 국별 보고회 개최 등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그 어느 때 보다는 책임감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했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올해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형 전기자동차 메카라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냈고, 에너지 자립이라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여전히 경제 상황은 어렵지만 군산시민 모두가 화합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을 전한 강 시장은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 발달장애인지원위 설치 필요”

김영자 의원, 권리보장·지원책 마련 촉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자(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제223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 발달장애인의 약 7%만이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게 체계적인 직업전환 교육이 이뤄진다면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도 경제적 독립과 안정한 자립을 이룰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자 의원은 "전국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직업고용센터, 발달장애 직업전환센터가 생기고 있지만 군산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단계에서 멈추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이용한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함께 발달장애인 직업체험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들의 재능자립을 위해 관내 판매처에 우선 입점과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 허용은 물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 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군부대, 인구 늘리기 실천 협약

육군부사관학교·7공수 특전여단·제9585부대 참여

익산시는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육군부사관학교와 7공수 특전여단, 제9585부대 3대대 등 3개 군부대와 인구 늘리기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태 육군부사관학교장, 이홍철 7공수 특전여단 참모장(여단장 직무대리), 최민호 제9585부대 3대대장이 참석해 인구 감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인구 관련 인식전환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홍보 △인구 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기관·단체의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을 지원한다.

군부대들은 △소속 군부대 군인과 가족 인구 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소속 군부대 군인과 가족 익산 거주 미전입자 바른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내부적인 분위기 조성 △시 인구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익산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교육기관, 여성단체, 기업체 등과 계속해서 인구 늘리기 릴레이 실천 협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기관·단체·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생적인 인구 늘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원광대학교 9월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익산=장인현 기자

익산, 청년희망도시 정책위 출범

익산시는 27일 익산청년센터 청실에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청년희망도시를 향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는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익산시장을 위원장으로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유관기관, 지역 청년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교육, 문화, 복지,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형성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은 '희망찬 도시, 즐겨라 청년'이라는 비전 아래 익산 청년희망도시 재창조를 목표로 △일터 재창조 △놀터 재창조 △살터 재창조 △희망터 재창조 등 4개 분야 41개 사업이다.

일터 재창조는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놀터 재창조는 청년문화향성, 살터 재창조는 청년들의 복지 증대, 희망터 재창조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입에 중점을 뒀다.

/익산=장인현 기자

원광대 의과대학 오경재 교수, 국무총리 표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노력 인정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의과대학 오경재(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여수에서 열린 2019 감염병관리 컨퍼런스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년 이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질병 발생 감소 및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오경재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보건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발휘해 왔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만도 수백 회에 이르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쏟은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오 교수는 "큰 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라북도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고위험지역인 만큼 국민 모두가 진드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인현 기자

군산시-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정책협의회 개최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이 해양수산 분야와 군산항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운동목 부시장, 박정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항 및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2019 하반기 해양수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항항 항로 준설 2단계 사업 ▲군산~어청도 항로 노후여객선 대체건조 ▲말도항로

기항지 차도선 선착장 확보 ▲원활한 항만운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산시는 '군항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어청도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한 고속선박 대체건조' 등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차도선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명도, 방축도 경사식 선착장의 조속 확보'와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한 구철도선과 완충녹지에 대한 토지이

용규제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양수산 정책협의회는 군산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산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 소통 강화,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해,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급년부터 상·하반기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 그동안 정책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사항 등을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으로 양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